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③	5	⑤
6	④	7	②	8	②	9	③	10	①
11	④	12	④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②	22	①	23	①	24	②	25	②
26	①	27	③	28	⑤	29	④	30	⑤
31	③	32	②	33	③	34	⑤		

해설

[1~4] (현대시) (가) 박두진, 「설악부」, (나) 이기철, 「길의 노래」

(가) 박두진, 「설악부」

이 시는 ‘설악’을 소재로 하여 이상 세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설악’은 순환적 질서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하고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 속에서 화자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세대가 항구적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를 그리면서 새로운 이상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한다.

(나) 이기철, 「길의 노래」

이 시는 ‘대구’와 ‘은혜사 술바람 소리’가 양쪽에 놓여 있는 길 위에 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조명한다. 무위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인위적인 세속의 삶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성찰적 시선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울어라’, ‘그립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어디이겠는가’, ‘있을까’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시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이해한다.

[B]에서는 시상이 ‘산’에서 ‘양지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양지쪽’에 꽃이 피고 무덤이 푸르러진 때를 제시하고 있다. ‘양지쪽’은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홀날린다’, ‘뒤덮었다’, ‘빠진다’는 모두 존재를 압도하는 ‘눈’과 관련된 시어들로,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②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있는 공간이 매우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늘 내일로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한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예지도’는 인간 세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산 끝’에 있는 ‘물’과 같은 자연에서는 거주장스러운 것 즉, 성가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위적으로 짜인 삶에 얽매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것이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

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나’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즉, 생명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나)에서 ‘대구’는 세속적인 세계를, ‘술바람 소리’는 무위한 자연의 세계를 표상한다. 따라서 ‘길’을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술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위한 자연이 주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 얽매어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5~10] (기술) 박승균, 「선박의 진수와 드라이 독」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드라이 독은 바다와 접한 욕상에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든 시설이다. 드라이 독의 수문을 닫고 독 내부의 물을 빼, 독 내부가 욕상과 같은 환경이 되면 선박 건조가 시작된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로 물을 채우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이때 홀수는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여 알아내는데, 이 부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프슨 공식이 활용된다. 1차 진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독 내부와 외부의 수위가 같아질 정도로 물을 채우고 배를 띄우게 되는데 이를 2차 진수라고 한다. 그리고 독의 수문을 제거하고 배를 끌어낸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6문단에서 드라이 독에서 수리와 점검을 마친 선박은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드라이 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 진수 과정이 생략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수문은 부력을 활용하여 열고 닫는다고 하였다. 또 5문단에서 내부의 물을 빼 수문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드라이 독 내부의 물을 모두 빼 독 내부가 욕상과 같은 환경이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한다고 하였다. ④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드라이 독 내부의 물을 뺀 후에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며,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독 내부에 물을 채워 선박을 진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드라이 독은 물을 채우고 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구역 I~Ⅲ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해당 구간에서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단면적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3, 4문단에 따르면,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 구한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연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실제 단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② 심프슨 공식을 적용하여 면적을 구할 때 구간을 세분하면 더 정밀한 근삿값을 구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 단면적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는 수직 단면적의 변화가 크다고 하였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또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다. 그러므로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

긴 부분의 부피는 같다.

[오답풀이] ① 1, 2차 진수 시의 배수량이 같다면, 이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같으며, 홀수도 같다. ③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이 두 선박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두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선박의 배수량은 부력의 크기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으면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하게 되며,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하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도 커진다. ⑤ 배수량이 큰 선박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에 비해 선박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가 더 크다. 그런데 이처럼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 독에서 수리하려고 하면, 먼저 독 안에 선박을 가득 채워, 이때에는 해수면과 독의 채워진 물의 높이가 같다. 그러므로 배수량이 작은 선박과 큰 선박 모두 처음 독 내부로 들어가 수문이 닫힐 때, 독 안에 차 있는 물의 높이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배수량이 작은 선박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가 배수량이 큰 선박에 비해 작다. 그러므로 선박의 수리를 위해 독 내부의 물을 뺄 때 더 많은 양의 물을 빼야만 한다.

8. [출제의도] 이유나 전제를 추론한다.

선박의 수직 단면적과 유사한 도형을 2개의 사다리꼴에서 3개의 사다리꼴로 분할하면, 도형의 곡면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면, 각 구간마다 세 개의 사다리꼴과 도형의 곡면이 이루는 면적 차이가 더 줄어들게 되므로, 수직 단면적의 근삿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드라이 독은 욕상에 설치하므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지만,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용하므로 선박 진수 시 수심이 깊은 해역 등으로 독을 이동시킬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드라이 독은 욕상에 설치된 독이고,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용하는 독이다. 그러므로, 플로팅 독은 태풍이나 높은 파도와 같이 좋지 않은 해상 조건에서는 드라이 독에 비해 건조 작업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② 플로팅 독은 선박 건조 시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플로팅 독이 받고 있는 부력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플로팅 독이 받는 부력의 크기가 선박의 배수량보다 작으면, 플로팅 독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다. ④ 플로팅 독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선박 건조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플로팅 독과 드라이 독 모두 욕상과 같은 환경에서 선박 건조나 수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드라이 독에서 선박을 건조하려면 먼저 독 입구를 수문으로 막아 독 내부와 외부를 차단해야 한다.

1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②의 ‘거치다’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신입 사원들은 엄격한 선발 단계를 거친 인재들이었다.’에서 사용된 ‘거치다’의 의미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④의 ‘거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의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의 ‘거치다’는 ‘마음에 거리끼거나 꺼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15] (갈래 복합) (가) 조우인, 「매호별곡」, (나) 채만식, 「다방찬」

(가) 조우인, 「매호별곡」

이 작품은 작가가 상주 지방의 매호에서 자연을 벗하

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 누대와 정자, 초옥삼간 등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한적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의 소회를 읊고 있다. 이 작품은 자연 풍광에 대한 묘사가 섬세하여 뛰어난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채만식, 「다방찬」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의 다방 풍경을 중심으로 근대화되어 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쓰이는 다방이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도시 생활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글쓰이는 다방을 근대적 문물을 갖추고 있으며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 등 다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조선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㉔에는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㉔ ㉖의 ‘옥 굿튼 여홀’과 ‘비단 편 듯 흘러 있다’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㉓ ㉗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화자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에서 화자는 쓸쓸하고 적막한 방에서 책 속의 성현 말씀과 천지신명을 통해,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자고 생각하고 있다.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은 자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화자가 현재 지내는 곳이다. 또한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은 ‘동천’과 대조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통하는 것이다.

1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글쓰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을 명곡이라고 칭하였다. ㉙에서 글쓰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웅만한 음악이 귀가 서투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고 여기는 글쓰이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㉑ ㉗에서는 다방에서 구두를 벗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의 모습은 풍자만화에 그려진 것으로, 글쓰이가 이 사람의 모습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㉕ ㉗에서는 다방이 주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글쓰이는 다방이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현실을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이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담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여기고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A〕의 ‘피여 디는 듯 푸르러 이우는 듯/ 온갖 바위 비단된 듯 온 골짜기 구슬된 듯’을 통해 자연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도시 생활에서 다방은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글쓰이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시비를 못 뚫거니’라고 한 것은 자연에서 지내고 있는 화자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가〕에서 ‘시비를 못 뚫거니’가 화자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다방에서 즐길 수 있는 안일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글쓰이가 특정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㉔ 〔가〕에서 ‘임호정과 어룡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소’라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체험하여 자연이 주체에게 2인칭의 공간이 되면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주체가 자연과 관계 맺지 못하면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21〕〔사회 주제통합〕〔가〕이성영·김도균, ‘법 규칙과 법 원리’, 〔나〕안성훈, ‘조선 시대의 형법’

〔가〕이성영·김도균, ‘법 규칙과 법 원리’

법 원리주의는 법 규범이 법 규칙과 법 원리로 구분되고 본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으로,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법적 삼단논법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으로,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가 충돌한다면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보고, 법 원리가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배경적 근거가 된다고 파악한다.

〔나〕안성훈, ‘조선 시대의 형법’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여부의 판단과 범죄의 형량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의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대명률의 ‘단죄인율령조’를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에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자는 인율비부로 인해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 유추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가〕에서는 법 규칙이 충돌할 때와 법 원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조선 시대의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의 논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가〕와 〔나〕에는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㉔ 〔가〕에서는 법 규칙이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이지만,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대비하고, 법 원리가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㉕ 〔나〕에서는 조선 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가〕에서는 법 규범의 체계를 구성하는 법 규칙과 법 원리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조선시대의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설명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법관의 주관을 중시하여 흠결 없는 법체계를 완성하려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㉑ 〔가〕에서는 법 규칙에 의한 판결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 법 규칙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법관이 법 적용을 할 때 일정한 과정과 방식을 따르도록 한 것은 법관이 법을 적용할 때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㉔ 〔가〕에서는 법 규칙을 적용할 때 일정한 규칙과 방식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는 법관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조선 시대의 형법이 형정주의 형식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는 법관의 판결에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와 〔나〕에는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법관의 주관적 개입을 방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a〕와 〔b〕는 ㉑과 ㉗의 입장에서 각각 전혀 다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㉑의 입장에서 〔a〕는 ‘율’과 ‘령’에 조문이 없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b〕는 ‘율’에 죄명이 없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조선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㉗의 입장에서 〔a〕는 이치에 비추어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b〕는 ‘율’에 의해 범죄 및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㉔에서 〔b〕는 ‘율’에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근거로 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 규칙과 법 원리 모두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조선 시대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 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을 때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율비부가 사용되었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㉖는 ‘도출한다’이므로 문맥적 의미상 ‘바로잡는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끌어 내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22~26〕〔인문〕성태제, 「문항 반응 이론의 이해와 적용」

고전 검사 이론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문항 분석 절차가 간단하여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이나 피험자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문항 반응 이론은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등의 문항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을 바탕으로 문항의 특성과 피험자의 능력을 확률적으로 추정한다.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이 어느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문항 반응 이론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항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고전 검사 이론의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항의 변별도를 피험자의 수와 피험자의 총점의 관계로 이해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총점으로 결정되며, 문항의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의 비율로 나타난다. 문항 반응 이론 역시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문항의 특성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 - 고전 검사 이론에서 B와 D의 능력은 총점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능력이 동일하다고 분석될 것이다.

㉡ - 1번 문항은 A, B, D 3명의 피험자가 맞혔으며, 3번 문항은 A, D 2명의 피험자가 맞혔으므로 고전 검사 이론에서 1번 문항이 3번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라고 나타낼 것이다.

한편, 1번 문항은 비교적 총점이 높은 A, B, D가 맞히고 총점이 낮은 C가 틀렸다. 따라서 총점과 1번 문항을 맞혔는지의 여부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3번 문항은 비교적 총점이 높은 B가 틀렸으며 총점이 낮은 C도 틀렸다. 따라서 총점과 3번 문항을 맞혔는지의 여부가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능력이 0보다 높은 구간에서 1번 문항의 기울기에 비해 3번 문항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척도 모수를 고려해 본다면, 능력이 0보다 높은 구간의 피험자들을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이 1번 문항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위치 모수는 $P(\theta)$ 가 0.5일 때 그에 대응하는 θ 지점을 의미하므로, $P(\theta)$ 가 0.5일 때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2의 능력을 가진 피험자는 θ 가 -2일 때를 의미하므로 2번 문항의 $P(\theta)$ 가 3번 문항의 $P(\theta)$ 보다 높다. ④ $P(\theta)$ 가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θ 지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난이도는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⑤ $-1 < \theta < 0$ 구간에서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는 3번 문항보다 2번 문항이 크다. 따라서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는 2번 문항이 높다.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능력이 -1인 집단의 응답 경향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는 -1.3보다 왼쪽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γ_i 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클 것이다.

【오답풀이】 ③ 같은 문항에 대해 능력이 높은 피험자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이 능력이 낮은 피험자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보다 높을 것이다. ④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그림 1> 상에서 난이도를 나타내는 직선이 γ_i 보다 아래쪽에 그어질 것이다. 따라서 능력이 1.5인 피험자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92보다 클 것이다.

26. [출제의도] 소재의 핵심 원리를 이해한다.

피험자의 실제 응답은 문항을 맞힐 경우 점수를 얻거나, 문항을 틀릴 경우 0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인 $P(\theta)$ 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유는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확률적

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27 ~ 30] (고전산문 복합) (가) 작자 미상, 「윤선옥전」, (나) 작자 미상, 「이공본풀이」

(가) 작자 미상, 「윤선옥전」

이 작품은 윤선옥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으로 태어난 윤선옥은 전란으로 인해 아내 박 소저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간다. 선옥은 조력자를 통해 신기 묘수를 익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선옥은 아내 박 소저와 재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청나라 천자와 조선 임금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작품은 선옥 못지않은 박 소저의 영웅성도 잘 형상화되어 있으며, 애정 소설, 군담 소설로서의 특징도 드러나 있다.

(나) 작자 미상, 「이공본풀이」

이 작품은 서천꽃발을 관장하는 신이 된 할락궁이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는 서사 무가이다. 사라도령이 저승의 서천꽃발 꽃감관으로 가게 되자,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헤어진 원강아미는 천년장자의 종이 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떠나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할락궁이의 행방을 추궁한다. 원강아미는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세 번 다짐하고, 이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한편 서천꽃발을 찾아가서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난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꽃 중 일부로 어머니를 죽인 천년장자에게 복수하고, 나머지 꽃들과 회초리로는 죽은 어머니를 살린다. 이후 할락궁이는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을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서술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분명히 산신령이 인도함이구나’ 등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온갖 어리광을 부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에는 선옥이 선경에 들어온 이유는 드러나지만, 선경을 찾은 데서 비롯된 안도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A]에서 노인은 선옥에게 선옥이 천상 세계의 태생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고, [B]에서 사라도령은 할락궁이에게 할락궁이가 지나온 물이 어머니의 눈물 또는 피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조력자인 노인이 둔갑술로 몸을 숨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선옥을 보고 선옥을 영웅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조력자가 선옥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할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는 것을 통해서도 조력자가 할락궁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선옥은 높이 솟아 있는 ‘층암절벽’을 올라 천상 북두칠성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초가집’에, (나)의 할락궁이는 각각 ‘밭둥’, ‘무릎’

‘자개미’, ‘잔등’에 뜨는 ‘물’을 지나 저승의 ‘서천꽃밭’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1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남악 산신령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로 선옥의 신분인, (나)에서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을 통해 사라도령과 할락궁이의 혈연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학생 3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가)의 ‘천만 병서’는 선옥이 ‘신기 묘수’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이라는 점에서, (나)의 ‘꽃뜰’과 ‘회초리’는 할락궁이가 어머니를 살려 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생 4의 진술은 적절하다.

[31 ~ 34] (현대소설) 최윤, 「속삭임, 속삭임」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른이 된 ‘나’가 지인의 과수원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피 준 아재비에 대해 떠올리는 내용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재비와 아버지가 나눈 속삭임을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두 축으로 삼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 고백적 진술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 ‘안온한 미소’ 등과 같은 말을 통해 과거의 기억에 부여한 의미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을 취할 수 있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1인칭 서술자이다.

3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아버지는 아재비의 불안한 신분을 알고 그것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나’는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풍경들에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인한 빚 때문에 보전되지 못했다. ⑤ 어린 시절 ‘나’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아버지가 반공 강연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깨를 으쓱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고려하여 감상한다.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에서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는 것은 딸에 대한 ‘나’의 바람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딸이,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는 전쟁의 이미지인 ‘고약한 냄새’를 지우는,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를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지닌 단어로 바꾸는,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딸이 세상의 대립, 대결 등을 없애고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만큼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아버지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 준 것을 의미한다. 상식에 따르면 마땅히 대립해야 할 두 사람이 대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는 것과 의미가 대응한다. ‘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통해 이미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는 말에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은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과 대조된다.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대응한다. ‘나’가 ‘과수원’에서 느낀 ‘평화’는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으로부터 느낀 것인데, 이러한 조화와 화해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과 그 의미가 어울려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⑤ 아재비와 아버지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 ‘호수 주변’ 등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속삭임이 공간과 연계되어 과수원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여러 공간과 연계되었기에 ‘나’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속삭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나’는 공책에서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 아재비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을 접하는데, 그것을 통해 ‘나’는 아재비가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나’가 공책에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재비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다고 짐작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은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있던,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말들이다. 이 말들은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와 같이 부드러운 말들이다. 따라서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은 딱딱한 어투로 쓰인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글들은 어린 ‘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화법과 작문]

35	㉔	36	㉓	37	㉑	38	㉔	39	㉑
40	㉓	41	㉕	42	㉒	43	㉕	44	㉕
45	㉔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청중에게 풍속화 속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격자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지 등의 질문을 던져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2>는 승경도판의 전체 모습과 함께 판의 한 칸을 확대해 제시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발표의 3문단에서는 판 바깥쪽 아랫부분의 격자들에서 놀이를 시작한다는 점을 밝히며, 격자마다 문과, 무과, 군졸 등의 출신이 적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시작할 때 출신을 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은 승경도 놀이를 하는 장면이 그려진 풍속화와 함께 윤목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풍속화 속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승경도 놀이를 소개하며 풍속화에 그려질 정도로 조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이를 즐겼음을 1문단에서 알려 주고 있다. ② <자료 2>에서 판의 한 칸을 확대한 부분을 가리키며 각 칸에 가로 방향의 큰 글씨로 관직명이 적혀 있고, 세로 방향의 작은 글씨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관직들이 적혀 있음을 2문단에서 알려 주고 있다. ④ <자료 2>에서 승경도판의 전체 모습을 가리키며 굵은 선의 안쪽에 중앙 관직이, 선의 바깥에 지방 관직이 배치되어 있음을 2문단에서 언급하며 승경도판의 관직 배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해 3문단에서는

판 바깥쪽 아랫부분의 격자들에서 놀이를 시작한다고 언급하며 놀이의 시작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자료 1>에서 윤목의 사진을 통해 윤목의 모서리에 눈금이 새겨져 있음을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윤목을 던져 나온 수에 따라 다섯 가지 경우로 진출할 수 있음을 밝힌 뒤 <자료 2>를 제시해 말이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1은 발표에서 놀이의 벌칙에 대해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 유배나 파직이 되었을 때 현실에서처럼 다시 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떠올린 것이지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놀이를 만든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며 자료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승경도 놀이에 대해 설명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③ 학생 3은 출신에 따라 승진 과정이 다르다고 설명한 발표 내용과 관련해 율놀이와 달리 말이 잡히는 경우가 없겠냐며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선조들의 놀이에 유배나 파직처럼 실제 관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하며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 2는 보드게임 중에도 주사위를 활용해서 하는 놀이가 있는데, 조선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놀이를 즐겼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하며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보드게임 중에도 주사위를 활용하는 놀이가 있다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승경도 놀이에 대한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학생 3은 율놀이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윤목이라는 도구를 던져 나온 수에 따라 말이 이동한다고 언급한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㉔에서 학생 1은 상대의 의견을 듣고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 학생 1이 질문하기 전에 상대가 사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1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사례를 요구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㉑에서 학생 1은 상대가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주기를 요청하자,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 ③ ㉔에서 학생 1은 상대가 한 명, 한 명의 선택과 행동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자, 이를 다시 말하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⑤ ㉔에서 학생 1은 상대의 계획을 듣고 멋지다고 말하며 상대를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정원사가 될 것이라는 비유를 사용해 응원하고 있다. 해당 비유를 강연에서 들었다는 것은 학생 1이 사회를 정원으로, 시민을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에 비유한 강연 내용이 인상 깊었다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대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1이 강연에서 들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학생 2는 괜찮다며 위로하고 있다. 학생 1은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B]의 대화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학생들을 보고도 말리지 못했다고 자책하자, 그 행동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위로하고 있다. 학생 2는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가)에서 학생 1이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이 2문단에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입증하

는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2문단은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2문단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따라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학생 1은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난감해 하는 학교 관계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언급하였고, 학생 2는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제시되어 학교 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무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연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학생 2는 나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학교 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목격하면 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의 문제임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나)에서는 ‘행동’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예상 독자의 신중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고쳐 쓴다.

(나)의 마지막 문단이 제멋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에게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 되가져 가기’와 ‘버리지 마’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신문 편집부장의 검토 의견을 알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에서 알 수 있는 과제 수행과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이 마감 시한에 압박해서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과제 외의 다른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고에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2문단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마감 시한에 압박해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초고의 4문단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과제 수행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버락치기로 과제를 수행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의 통념을 언급한 후, 고등 사고 능력이 떨어져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통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초고의 2, 3문단에서는 마감 시한에 압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과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완성도 높은 과제 결과물도 얻고 해야 할 다른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이라고 문맥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2문단에서는 벼락치기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져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ㄱ-2는 과제를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수행하는 편인 학생들에게 과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ㄴ은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들 자료에서 학생과 교사의 과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활용해 2문단에 학생과 교사의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ㄱ-1은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편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들이 78%에 이르므로 이를 활용해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마감 시한에 임박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ㄴ은 우리 뇌의 작용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쏟다 보면 그 문제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집중하지 못함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 과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③ ㄷ은 시간에 쫓기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⑤ ㄴ은 우리 뇌가 부족함을 인식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한정된 집중력을 몰아주게 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이다. 그리고 ㄷ은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④	38	③	39	①
40	③	41	①	42	⑤	43	⑤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부정 의미의 용언과 쓰이는 단어를 이해한다.

‘여간’은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로서, ㄴ에서 ‘여간’으로 인해 문장이 의미가 ‘탐스럽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③ ㄷ의 ‘밖에’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에서와 같이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④ ‘좀처럼’은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는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도 쓰일 수 있다. ㄹ의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는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지 않는다’를 뜻하므로 ‘좀처럼’이 쓰일 수 있다. ⑤ ‘움쭉달쭉하다’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따라서 ㄹ은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쭉달쭉하지 못했다’와 같이 수정하여야 어법에 맞는다.

36. [출제의도] 단어의 시대적 형태와 의미를 이해한다.

㉠의 국어사 자료의 ‘별로’는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인다. [오답풀이]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귀찮다’

는 국어사 자료 ‘귀치 아니컨만’에서 알 수 있듯이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귀찮다’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 ‘시원치 안니ㅎ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이해한다.

㉤는 ‘상태’라는 명사에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또한 ‘상태’를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다. [오답풀이]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 ‘[자료] (4)’의 사례를 보면 어간이 ‘ㄱ’로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1’은 합리적이지 않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자료] (3)’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후에 어간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를 통해 ‘홀다’가 [홀따]로 발음되는 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높임 표현과 겸양의 표현을 이해한다.

㉠ ‘저희’는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로, ‘드리다’는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연세’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 ‘모시다’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이 아니라, ○○고 가정 통신문을 찍은 사진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을 고려하여, 이미지,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보여주는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쓰레기통 모양의 이미지와 화살표 이미지를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을 고려하여,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에서 ‘올라갑니다’라는 글자에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결합하여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④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을 고려하여, 여섯 번째 카드에서 잔반을 줄이면 ○○고 급식의 질이 올라가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수정된 네 번째 카드에서 ○○고 영양사는 잔반을 30%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두 번째 카드의 내용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왜 급식을 남길까?’로 제목을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③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원그래프의 여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카드의 아래쪽에 따로 정리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장면 6]에서는 [장면 3]의 내용 중 전문가의 시연 장면을 다시 보여 주며 보도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보도 내용에서 다룬 여러 가지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의 화면 상단 한쪽에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했다. 이를 통해 뉴스의 수용자는 보도 내용의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③ [장면 3]에서는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이 악용되는 방식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④ [장면 4]에는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음성 언어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화면 구성에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수용자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나)의 신문 기자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인용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에서 기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나)의 기사는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보도하였으므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급증했다고 하고, (나)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